

§ 교회 목표 §

- 1. 천국시민 양성
- 2. 만민에게 전도
- 3. 빈약한 자 구제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순례자

Pilgrim

§ 2021년 표어 §

"다시 세워지는 서울교회"(스 10:1, 12, 행 3:19-21)

十 행동 지침十

- 1. 약속의 말씀 위에 다시 세워지는 서울교회!
- 2. 믿음의 계대 이루어 미래를 열어가는 서울교회!
- 3.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서울교회!

발행처 : 대한예수교장로회 **서울교회** 서울시 강남구 삼성로 51 길 7 전화:(02)558-1106 팩스 : (02) 558-2107 http: www.seoulchurch.or.kr



쫓아낼 자 없느니라

(요 6:37)

이종윤 원로목사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요 6:37)

성경의 모든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요 어느 한 부분도 중요하지 않은 부분이 없지만 특히 본문 말씀은 우리의 믿음을 격려하고 우리에게 날마다 새 힘을 주시는 귀한 말씀이 됩니다.

1. 아버지가 주신 자

본문은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넓게 열어놓으시고 하나님이 보내주신 아들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는 모두 그 하늘 문으로 들어오게 하신다는 약속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게 오는 자'는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자를 말합니다.

(1) 선택된 자

아버지가 주신 자라는 말은 아버지가 택하신 자라는 말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택하신 아들 예수님께 주셨습니다.

(2) 믿음을 가진 자

믿음이 없이는 아무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택함을 입고 예수님께 주어진 사람인지 아닌지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에게 믿음을 주셨는지를 보면 압니다. 장로가 되고, 심지어 목사가 되어도 구원의 확신을 갖지 못하는 사람들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믿음은 주님께서 하신 일을 믿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이 행하신 일, 십자가 사건, 부활 사건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을 믿으면 그 다음에는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예배를 드린 지 불과 몇 분 만에 서로 존경하고 사랑하고 하기보다 조그마한 일에도 험기를 내고 싸운다면 이 믿음은 소경 놀음하는 것이나 다름없는 것입니다.

믿음은 지식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요소에서 지식이 결여되면 안 됩니다. 믿음은 또한 머리로만 이해하는 사변적인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확실한 것입니다.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믿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세상을 잘 살아야 하고, 조심스럽게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갖는다는 것은 비현실적인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볼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바라보는 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뱀에 물려 독이 올라다 죽게 되었습니다. 그때에 모세가 장대에 구리뱀을 달아서 바라보라고 했습니다. 뱀을 바라보는 눈을 가진 사람들은 살아났고 뱀을 바라보지 않은 사람들은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약속을,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가진 사람은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이 눈이 없는 사람은 소경이요 불쌍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가져야 할 눈은 광야에서 구리뱀을 쳐다본 그 눈이어야 합니다. 십자가를 볼 수 있는 눈을 가져야 합니다. 예수님의 그 귀하신 사역을 2천 년이 지난 지금에도 볼 수 있는 눈을 가져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날마다 생명의 떡을 먹어야 하고, 생수를 마셔야 합니다.

(3) 죄인임을 고백하는 자

예수님은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고 하셨습니다. 의인은 예수님과 상관이 없는 사람입니다. 바리새인과 같은 진짜 죄인들은 자신이 죄인인 줄도 모릅니다.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모두 무거운 짐을 진 사람으로서 자기의 무능을 인정해야 합니다. 짐은 너무 무겁고 인생은 살기 힘듭니다. 그러므로 죄인임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손들고 나와야 합니다.

2. 예수님께 오는 방법

(1) 즉시 순종

주님 앞에 온 대표적인 두 사람이 있는데 삭개오와 베드로입니다. 삭개오는 뽕나무 위에 있다가 주님이 내려오라 하실 때에 즉시 내려왔습니다. 베드로는 그물을 걷고 있다가 부름을 받고 즉시 일어났습니다. 순종을 할 바에는 즉시 해야 합니다. 삭개오와 베드로가 위대한 이유는 즉시 순종한 데 있습니다.

(2) 가난한 마음

정말 천국을 소유하고 싶다면 우리는 가난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가난한 마음은 자신이 비참한 존재라는 것을 느낄 때 가질 수 있습니다. 자기가 비참한 존재라는 것을 정직하게 고백할 줄 아는 사람이 겸손한 자입니다.

(3) 믿음으로

믿음을 가진 사람은 두려움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는 방법은 믿음을 가지고 나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느냐 그렇지 못하느냐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느냐 못하느냐를 판가름하는 중요한 관건이 될 것입니다. 이 자리에 나온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온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주님 앞에 올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에, 바로 지금, 부름 받았을 때에 와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자신의 비참한 모습을 발견한 그 순간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와 풍성한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서울강남노회, 부목사 연임 청원은 허락, 장로 증원 청원은 보류

- 장로선거는 가을노회 이후로,
안수집사·권사 선거는 예정대로 5월에 -

지난 4월 6일(화) 오전 9시 서울 압구정동 소재 소망교회 본당에서 서울강남노회 제68회 정기회가 개최되었고, 서울교회는 임시당회장 강희창 목사 외에 서명철, 장석남, 조원영 등 부목사 전원과 임상헌, 이계홍, 최형열 장로 등이 총대로 참석하였다.

개회예배 후 이루어진 안건처리 과정에서 서울교회 당회가 파송한 장로총대가 정식 회원으로 받아들여지고 부서까지 배정받아 실로 분쟁 이후 5년 만에 서울강남노회가 서울교회 당회를 정식 법적으로 인정하는 의미를 갖게 되었고, 이어 당회가 청원한 부목사들에 대한 연임청원 건까지는 그대로 허락되었으나 장로 10명 증원청원 건은 서울교회 관련 총회의 화해조정과정을 고려하여 당분간 처리를 보류하는 게 좋겠다는 주무부서(정치부)의 의견에 따라 아쉽게도 본회의 허락을 받지 못하였다.

노회가 파송한 임시당회장의 인도에 의하여 적법하게 결의된 청원안건이 현재 실제 진행되

지도 않는 화해조정 등의 사유로 보류되는 과정에 당회서기 임상헌 장로는 두 번의 발언기회를 통하여 그 부당성을 토로하였으나 이미 정해진듯한 결론에 따라 진행되는 상황을 더 이상 저지하지 못한 채 노회를 마치게 되었다.

결국 위 장로 증원 건이 보류됨에 따라 오는 5월 예정된 장로선거는 가을노회 이후로 연기할 수밖에 없게 되었으나 노회허락이 필요 없는 안수집사와 권사 선거는 예정대로 진행할 예정이다.

지난해 10월 서울강남노회가 그동안 미루었던 임시당회장을 파송하여 주는 등 이제야 정상적인 노회 행정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것도 잠시, 아직도 서울강남노회 일부 목사나 장로들의 편향된 자세에는 사실상 아무런 변화가 없는 상황임을 실감하면서 교회 정상화를 위하여 앞으로도 남은 여러 과제들을 위하여 성도들의 특별한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봄맞이 대청소 실시한다

- 4월 17일(토), 오전 10시부터 -

교회는 본당 회복 직후부터 건축 후 20년 이상 경과되고 특히 교회 분쟁 기간 동안 거의 방치되어 온 교회 건물 각 부분에 대한 대대적인 보수와 정비를 시행하고 있다.

그 일환으로 특별위원회 산하 건축물 보수 소위원회(위원장 차도훈 장로, 간사 이강인 집

사, 자문위원 오정수 은퇴장로) 주관 하에 오는 4월 17일(토) 오전 10시부터 교회 건물 전체에 대한 봄맞이 대청소를 실시할 계획이다.

교회를 사랑하는 뜨거운 마음으로 관심 있는 성도들의 동참과 헌신을 부탁드립니다.

온라인 헌금을 위한 봉헌 계좌

서울교회 통장계좌는 다음과 같다.

* 신한은행 대치동지점 100-034-868968
(대한예장 서울교회)

광 고

신속한 교회 행정을 위하여 이사 등 주소변경 시는 즉시 사무국이나 교구목사에게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담임목사 청빙을 위한 기도 제목

1. 모든 송사 건이 속히 정리되게 하시고, 정결한 가운데 담임목사를 청빙할 수 있도록 성결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2. 사랑하는 서울교회의 아픈 상처가 치유되고 회복되어 <천국시민 양성> <만민에게 전도> <빈약한 자 구제>의 목표를 이루고,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의 이념으로 하나님의 목회를 감당할 담임목사를 하나님이 찾아 보내 주옵소서
3. 모든 청빙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와 뜻이 나타나게 하사 온 성도가 한 마음으로 순적하게 진행되어 거룩하고 화평한 서울교회가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4. 청빙위원들에게 성령충만과 분별력과 하늘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5. 청빙 받는 목사님께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평안의 마음을 주시고, 섬기던 사역지도 아무런 어려움 없이 기도와 격려로 후원할 수 있게 하옵소서

부활의 증인들

지난 주일, 부활절을 맞아 주일 I·II·III부 예배 시 떡과 달걀을 나누며 주님의 부활을 기뻐하였다. (사진 ①, ②) 또한 찬양예배 시 부활절 특별 찬양을 가브리엘 찬양대(대장: 오승민 집사) 지휘 백경화 권사, 오르간 이수정 성도, 피아노 정혜은 성도, 팀파니 윤주일 집사, 소프라노 솔리스트 박민정 성도, 김정인 성도, 테너 솔리스트 김성현 성도, 베이스 솔리스트 황성영 성도들이 영광의 찬양을 드렸다.





서울교회의 선교 후원으로 케냐의 선교사역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마케도니아 교회 건축을 시작하며

케냐에서 안부를 드립니다. 안전하게 건강하게 주님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1. 케냐의 상황

베일에 싸여 이곳 코로나 소식을 자세히 알기에 쉽지 않았던 케냐의 요즘 상황은 7,000명 검사에 1,700명 양성 확진자가 나와 엄청난 위험 속에 또 무증상 환자들이 많은 관계로 철저한 마스크와 소독과 거리 두기를 하고 있지만 우린 걱정이 많은 반면에 정작 여기 사람들은 돈이 없어 마스크를 구입하지 못해 그러는지 별로 신경 안 쓰고 있어 위험하고 조심스럽습니다. 저희도 이제 나이가 있고 현지인과 같이 근접해서 사역해야 하는 관계로 초 긴장 속에 매일매일을 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급기야 최근 한 달 사이에 14명의 한인 선교사와 한인 교민들이 코로나에 양성 확진되어 앰블런스에 실려가고 입원하고 치료를 받던 중 그중 한 분(소망교회 파송, 이광호 선교사)이 이틀 전에 하나님의 부름심을 받았습니다. 그 분과는 매우 가깝게 지내던 사이여서 충격에 하루 종일 멍하니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선교사회에 비상이 걸리고 공문이 내려오길 현지인과의 접촉을 자제하고 당분간 비대면 사역활동을 권유하고 있습니다. 우리 스텝 모세 선생도 지난주 코로나 증상과 똑같이 너무 심하게 일주일간 아프고 해서 코로나 검사비를 도와주었고 음성이 나왔지만 아직도 후유증이 있습니다. 또한 불경기로 인하여 많은 가게들이 문을 닫고 버스 값과 먹을 것도 비싸져서 스텝들이 힘들다고 아우성입니다.

2. 그래도 사역은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 속에 저희를 이곳에 있게 하시고 은혜 가운데 어렵고도 고통 속에 있는 많

은 지친 자들을 보게 하셔서 기도케 하시고 응답으로 화답해 주시고 사랑을 이곳으로 흘려보내주시는 후원으로 인해 우선순위로 선별하여 돕게 하십니다.

첫째: 저희도 수업하며 같이 사용하고 있는 마케도니아 교회 건축은 예상 밖으로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시대의 끝에선 지금 주님의 말씀을 감당하는 교회가 될 것을 기대합니다. 다 쓰러져 가는 양철 교회를 튼튼한 벽돌 교회로 세우고 계십니다

둘째: 코로나 시대의 새로운 교육 커리큘럼을 만들고 전국의 모든 학교가 긴 방학을 하고 이제는 개학을 하면서 코로나 상황에 맞게 대면과 비대면으로 잘 분석 연구하여 진행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세우고 있습니다. 7곳 초등학교 방과 후 수업과 3개의 합창단은 당분간 휴업하고 정신지체 특수아동 학생 수업은 진행하며 컬리지 과정도 인원을 줄여 수업을 진행합니다.

셋째: 하나님은 굶고 버려진 어린이들을 더욱 사랑하시는 듯합니다. 주자타운에서 5km 정도 떨어진 가난하고 외진 마리아이니초등학교 654명의 학생들이 점심을 못 먹고 굶고 있다는 소식을 접하고 도움을 요청해 급식을 위해 계속 기도하던 중 미국의 원 파운데이션이 (NGO대표 원미나 권사) 3,000\$을 후원하시어 씨드머니를 시작으로 저희에게 구체적으로 섬길 수 있도록 교장과 연락하고 학교를 다시 방문하여 아직 충분한 예산이 확보되지는 않았으나 진행하라는 마음을 지속적으로 주시더니 결단의 마음도 허락해 주셔서 계획을 세웠지만 학생 수가 너무 많아 업무를 내지 못하던 중에 점심 급식 일부를 후원하겠다는 미국의 2곳의 후원자로부터 매달 1000\$ 예산의 후원이 잘 채워지는 역사

가 일어났습니다. 열악한 장소와 환경이라 부엌을 만들 장소, 화덕 2개(2,800\$)를 만들어 주고 654명이 콩과 옥수수로 약간의 배를 채우기에 지속적으로 감당할 수 있는지 염려가 되지만 기존에 하고 있던 에세키초등학교 320명과 루아라카아카데미 150명 급식을 포함 1124명의 어린이들이 점심을 먹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넷째: 한국에서 14,000개의 마스크를 후원받아 2월에 문계초등학교(2,000장) 3월에는 에세키초등학교(450장)와 티리리카 초등학교(1,150장), 주자고등학교(500장), 경찰서, 공사장 등 방문하여 마스크를 전달하였습니다. 마사이지역 에세키초등학교는 일 년에 한번 먹을까 말까 하는 음료수 1병과 같이 나눠 줬는데 감격하여 교장과 교목, 전체 어린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손을 높이 들고 감사 기도하는 장면에 가슴이 뭉클하였습니다.

다섯째: 14명의 고등학교, 5명의 대학교 장학금을 받고 공부하는 학생들, 4명의 대기자 또한 감사의 마음이 충만하여 열심히 공부하고 아이들이 정말 신실한 주님의 자녀로 잘 성장하길 바라며 후원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사역을 잘 선별하며 온전히 감당하려고 하나 더 많은 사역들이 또 저희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여 주실 줄 믿으며 지속적으로 기도와 사랑과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빠른 시일 내에 코로나로부터 안전하게 이겨내고 회복되어 맘껏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이 기뻐하시는 사역에 전념할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저희는 이곳에서 잘 이겨내리라 믿습니다.

2021년 3월 25일

케냐 김낙형·오정녀 선교사



마케도니아 교회 건축 현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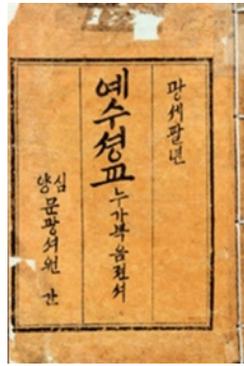
천국시민 양성 - 신앙강좌반

우리말 성경의 역사 2

- 존 로스 목사와 최초의 한국 개신교 신자들 ①-



▲ 서상륜 장로



▶ 낱권으로 된 최초의 우리말 성경 '예수성교 누가복음전서'



▲ 존 로스 목사와 그의 가족들

▶ 조선 최초의 개신교 신자인 백흥준 장로



1873년, 스코틀랜드 선교사 존 로스는 대원군의 쇄국정책으로 조선에서의 선교가 어렵다는 걸 알고 조선인을 만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청나라와 조선의 국경지대인 고려문으로 가야겠다고 결심한다. 이곳에서 로스 목사는 붓짐장사를 하러 온 백흥준의 아버지를 만나 전도하고, 그는 의주로 돌아가서 아들 백흥준에게 로스 목사를 만나보라고 권면한다. 이에 백흥준은 로스 목사를 찾아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세례 받은 조선 최초의 개신교 신자가 된다. 이어서 의주를 떠난 후 돌아오지 않는 백흥준을 찾아 나선 친구들인 이응찬, 김진기, 이성하는 고려문으로 가게 되는데 이들 역시 세례를 받고 한국개신교 신자들이 되었다. 1877년 로스 목사는 이응찬과 함께 조선어 문법책 "Corean Primer"을 저술하게 되는데 백흥준, 김진기, 이성하도 가세하여 문광서원에서 성경을 우리말로 번역하는 작업에 돌입한다.

한편 고려문을 오가며 붓짐장사를 하던 서상륜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영구(만주지역의 항구도시)에서 열병에 걸려 사경을 헤매다가 다행히 스코틀랜드 출신의 선교사로 로스 목사와는 매제간이었던

매킨타이어 목사에게 안내되어 그의 정성어린 간호로 완쾌된다. 그리고 마침내 그도 예수를 믿고 심암에서 로스 목사에게 세례 받은 후 우리말 성경 번역팀에 합류하게 된다. 그리하여 1882년 낱권으로 된 최초의 우리말 성경인 <예수성교 누가복음전서>가 출간되었다.

선교사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최우선의 과제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성경이 그 나라말로 번역되어 있어야 했다. 그래야 복음을 전한 후에 그 마을에 성경을 남겨주고 또다시 다른 마을로 전도하러 갈 수가 있었기 때문이다. 당시 조선에는 한문으로 된 성경은 있었지만, 한문 성경을 이해하는 조선인은 많지 않았기에 널리 복음의 씨를 뿌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쉬운 우리말로 번역된 한글 성경이 필요했다. 이러한 조선 선교의 열의로 이뤄낸 것이 바로 우리말 성경이 탄생된 배경이다.

요약정리 : 김애리 집사(편집부)

전교인 성경읽기표

교구(부서): 이름:

일 자	요일	1년 1독	확인	1년2독	확인
4월12일	월	왕상 3-4		전 1-12	
4월13일	화	왕상 5-7		아 1-8	
4월14일	수	왕상 8-9		사 1-7	
4월15일	목	왕상 10-11		사 8-16	
4월16일	금	왕상 12-13		사 17-28	
4월17일	토	왕상 14-16		사 29-36	
4월18일	주일	왕상 17-18		사 37-43	

동정

■ 이종운 원로목사는 COVID-19로 중단되었던 여호수아회 정기총회와 정기집회를 4월15일(목)에 성경강해로 시작한다.

서울 주간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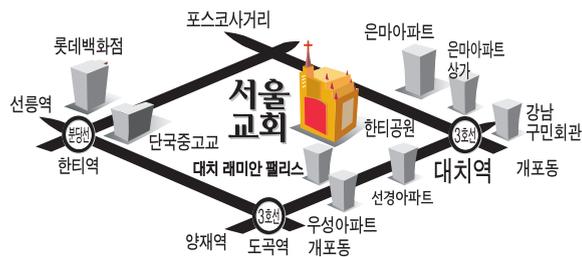
- 주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

1. 하나님의 목회를 신실하게 감당할 담임목사를 찾아 보내주시어 말씀에 갈급한 성도들에게 풍성한 꼴을 먹일 수 있게 하옵소서.
2. 코로나19 백신의 접종이 안전하고 원활하게 되게 하옵소서.
3. 복음화 된 통일조국 속히 이루어져 땅 끝까지 이르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제사장 나라와 민족 되게 하옵소서.

■ 예배 및 집회

구 분	시 간	장 소
주 일 예 배	I 부 예 배	오전 9시
	II 부 예 배	오전 11시 20분
	III 부 예 배	오후 2시
	찬 양 예 배	오후 5시
	English Worship	오전 11시20분
수 요 예 배	I 부 예 배	오전 11시
	II 부 예 배	오후 7시
새 벽 기 도 회	오전 5시 30분(월 - 토)	웨스트민스터 홀

■ 교회 오시는 길



■ 서울교회QR코드

